

〈인생나눔교실〉의 인문정신 가치 탐색

The Search of the Value of the Humanistic Spirit through 〈Life Sharing Class〉

이상민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Sang-Min Lee(milee@catholic.ac.kr)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인생의 선배 세대와 후배 세대가 멘토링을 통해 나눔, 배려, 공감, 소통의 인문정신 가치를 체화하는 〈인생나눔교실〉의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는 데 있다.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멘티들에게 집단적인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인생나눔교실〉에서 멘토에게는 진실성, 유동성, 배려 등의 역량이 보다 중시되었다. 〈인생나눔교실〉에서 나눔은 인적나눔이며, 자원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었고, 배려는 멘토와 멘티 간의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몰입, 공감, 수용, 확언의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공감은 멘토들이 멘티들에게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자질을 의미하였고, 소통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소통의 모순성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의 증폭현상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인생나눔교실〉은 인문정신 가치의 체화라는 목표를 가진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특화될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삶의 성숙기에 들어선 세대가 지역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 중심어 : 〈인생나눔교실〉 | 나눔 | 배려 | 공감 | 소통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iscover the value of experiencing the humanistic spirit of sharing, consideration, sympathy, and communication through the mentoring program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through the 〈Life Sharing Class〉. The 〈Life Sharing Class〉 provides collective mentoring to mentees to involuntarily participating mentees, prioritizing traits such as truthfulness, flexibility,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The sharing within the 〈Life Sharing Class〉 is the sharing of human traits, and displays the characteristics of volunteering.

For better mutual connection and interdependence between the mentor and mentee, concentration, sympathy, understanding, and assurance is also needed. Also, sympathy is key trait that both mentors and mentees should possess, along with communication, the lacking of which causes the contradictions within our society and amplification of generational conflicts.

Thus, the 〈Life Sharing Class〉 show the potential to become a unique mentoring program that uses culture and art to experience the humanistic spirit. Also, this program is valuable in that it provides the opportunity for the matured generation to contribute to the local community.

■ keyword : 〈Life Sharing Class〉 | Sharing | Caring | Empathy | Communication |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6A4027505)

접수일자 : 2018년 07월 0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27일

수정일자 : 2018년 07월 27일

교신저자 : 이상민, e-mail : milee@catholic.ac.kr

I. 서론

<인생나눔교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멘토링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세대 간의 소통과 사람 중심(인문) 가치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세대가 자연스럽게 만나 공감하고, 소통하며,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사업은 은퇴한 선배 세대가 경험한 삶의 지혜를 이제 막 인생의 여정에 들어서는 새내기 세대에게 전해주는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선배 세대와 새내기 세대 간에 만남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선배 세대(멘토)는 멘토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누고 배려하는 인문정신 가치를 추구하고, 새내기 세대(멘티)는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선배 세대와 공감하며 소통하는 인문정신 가치를 체득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인생나눔교실>은 멘토와 멘티의 관계맺기를 통해 나누고 배려하며 공감하는 인문정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4년째 본 사업이 진행되면서도 나눔, 배려, 소통, 공감이 <인생나눔교실>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명료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정체성도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인생나눔교실>의 사업 기반이 정착되어 확산되는 시기에 접어든 지금, 본 사업이 지향하는 인문정신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하고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인생나눔교실>은 현재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의 5개 권역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주요 구성원은 멘토, 멘티, 튜터이며,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선발한 5개 지역주관처에 소속되어 있다. 멘토는 인문적 소양을 갖춘 은퇴자 및 인문 문화계 종사자 중 사회공헌(봉사)에 관심이 있는 자들로 구성된다. <인생나눔교실>에서 멘토는 자신이 살아온 삶의 궤적으로 돌아보고, 그 안에 깃든 의미와 가치를 찾아 젊은 세대의 멘티들에게 나누어 주는 인생 선배의 의미를 가진다. 멘티는 그룹으로 구성되어 참여하는데, 이들은 급변하는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청년(군부대), 아동·청소년들

(자유학기제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진로·취업·결혼·육아 등 생애주기의 문턱에서 선배 세대의 조언이 필요한 세대들이다. 이들은 매년 평균 13회의 멘토링을 하게 되는데, 2017년 진행된 사업 현황을 보면 군부대 120개 그룹, 중학교 50개 그룹, 지역아동센터 40개 그룹, 보호관찰소 20개 그룹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튜터는 멘토와 멘티의 멘토링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튜터는 각 권역별로 8명씩 선발되어 튜터 1인당 약 5명의 멘토를 관리하며 행정 지원,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종의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볼 수 있다. 튜터는 학습소모임을 통한 멘토의 프로그램 기획 방향을 제시해 주고, 멘토링 운영 지원 및 모니터링을 통한 멘토링을 보완해 준다. 이를 통해 멘토와 지역주관처를 연결하는 매개자 및 원활한 멘토링을 위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주관처는 지역 내 사람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 인력(멘토, 튜터) 및 자원(멘티 참여기관) 등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18년 지역주관처는 수도권은 서경대학교, 충청권은 충청문화재단, 강원권은 강원문화재단, 영남권은 대구문화재단, 호남권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선정되었다. 지역주관처는 각 권역별로 선별된 약 250여 명의 멘토가 군부대, 중학교, 지역아동센터, 보호관찰소 등에서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하고, 튜터가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인생나눔멘토를 선발하여 교육하고 권역별 주관처를 관리하며, 현장 점검 및 사업을 평가하는 총체적 역할을 맡고 있다. <인생나눔교실>의 진행 체계에 대해서는 [그림 1]을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인생나눔교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세대 간 갈등을 완화하는데, 인문정신의 가치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생나눔교실>에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가진 멘토는 여러 세대와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인생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멘티는 수십 년 먼저 삶을 살아온 멘토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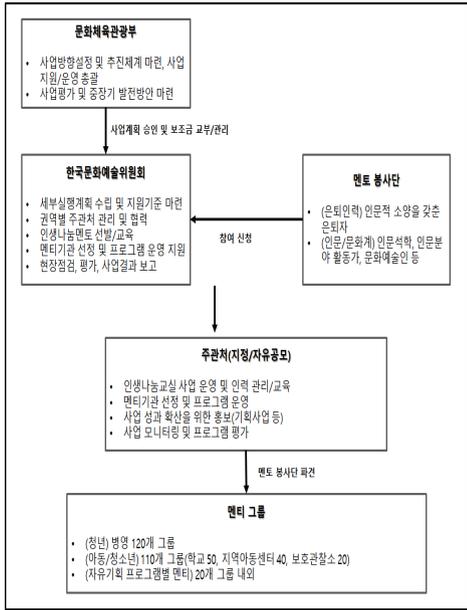


그림 1. 〈인생나눔교실〉의 진행 체계

이런 소통의 과정에서 나눔, 배려, 공감, 의 인문정신 가치가 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생나눔교실〉에서 나눔, 배려, 공감, 소통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학문적으로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탐색 활동은 〈인생나눔교실〉이 그동안 다른 여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과 변별력이 없다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생나눔교실〉에서 지향하는 인문정신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생나눔교실〉의 정체성과 가치가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인생나눔교실〉 인문정신 가치의 특성

〈인생나눔교실〉의 인문정신 가치는 나눔, 배려, 소통, 공감으로 표방된다. 이 네 가지의 키워드가 〈인생나눔교실〉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찰해야, 본 사업의 인문정신 특성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나눔’은 2012년 보건복지법에서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에 의거하여 살펴볼 수 있다. 나눔기본법에서는 법

적인 나눔의 목적을 인간의 복리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나눔의 행태를 자발적 물질·인적 요소의 이전이나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로부터 나눔의 하위개념인 물질나눔, 인적나눔, 생명나눔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나눔=기부+자원봉사+생명나눔’이라는 공식이 등장하게 되었다[1].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인생나눔교실〉의 ‘나눔’은 인적나눔이며 자원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배려’는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느낌·사조·행동의 측면을 갖는 집합적·도덕적·구체적 개념이다[2]. 배려를 몰입, 공감, 수용, 확인의 4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고 있는 Noddings는 몰입은 배려 받는 상대방에 대하여 선입견을 갖지 않고 열린 자세로 이야기를 듣고 열중하는 것을 말한다. 공감은 상대방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느끼는 능력과 관련되는데, 수용이나 확인 등의 행위를 통해 발현된다. 수용은 배려 받는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으로 배려 받는 상대방이 자신을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확인은 배려 받는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말한다[3]. 〈인생나눔교실〉에서 배려의 가치는 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배려는 기관의 의도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멘티들에게 멘토와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배려를 윤리적 접근 방법으로 체계화한 Noddings의 이론처럼 〈인생나눔교실〉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몰입, 공감, 수용, 확인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멘토는 스스로 멘티에게 몰입하고 그들에게 공감해 주어야 하며, 멘토의 행동이 멘티에게 수용받고 확인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멘토와 멘티의 관계 형성이 일어날 수 있다.

‘공감’은 사회복지사전에 따르면 타인의 정서와 생각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경험하며 그것들에 반응하는 행위이다. Decety와 Morigrychi가 설명하고 있는 공감의 4가지 구성 요소는 정서적 공유, 자기/타인 인식, 정신적 유연성, 정서적 통제로 나타난다. 정서적 공유는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따라하는 것

이고, 자기/타인 인식은 사람들의 감정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정신적 유연성은 타인의 주관적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고,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관리하는 능력을 말한다[4]. 이러한 의미 중에서 정서적 공유와 정신적 유연성은 특히 <인생나눔교실> 멘토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와 자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새내기 세대인 멘티들에게 자칫 선배 세대로서 멘토가 조언해 주는 입장이 아니라 멘티의 감정과 의도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통’은 communication의 번역어로 쓰이지만 그 개념과 이해는 다양하다. 사회과학에서는 의사소통이란 번역어를 쓰지 않고 직역하여 ‘커뮤니케이션’으로 쓰고 있다. 이는 자극 전달의 과정, 공통성의 수립 과정, 한 마음이 다른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 등의 뜻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써 왔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전방위적 불통성, 소통의 모순성, 언어의 급변성, 매체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다. 이 중 소통의 모순성은 소통의 도구가 다방면으로 진화해 가면서 이에 비례해 동세대간 소통은 활발하지만, 인종, 세대, 성별, 계층, 직업 간 불통현상이 증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는 현상을 뜻한다[5]. 따라서 <인생나눔교실>의 소통은 소통의 모순성 측면에서 세대 간 갈등의 증폭현상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와 새내기 세대의 인적 ‘나눔’이고, 멘토의 수용과 확언을 통해 멘티를 ‘배려’하며, 멘토는 정서적 공유와 정신적 유연성을 통해 멘티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생나눔교실>은 선배 세대와 새내기 세대 간 ‘소통’이 이뤄짐으로써 <인생나눔교실>의 인문정신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III. <인생나눔교실> 멘토링의 특성

멘토링은 멘토가 멘티에게 영향을 끼치는 활동을 의미한다. 멘토링은 경험과 지혜와 신뢰를 바탕으로 준비된 멘토가 멘티를 위해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경험 과정이며, 멘토와 멘티 사이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교감의 장이기도 하다.

멘토라는 단어는 그 유래를 익히 알고 있듯이 기원전 1200년경 오딧세이가 멘토에게 자신의 아들의 교육을 맡기면서 지혜와 신뢰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주는 지도자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 멘토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멘티와의 관계를 잘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마다 조금씩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는 다양한 멘티의 성향과 멘토링의 유형에 따라 멘토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멘토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연구자들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6].

표 1. 멘토 역량에 대한 대표 연구

연구자	멘토 역량
Sosik & Lee(2002)	· 지식 : 자기성찰, 시스템인지, 시스템몰입, 불확실성하의 판단, 적절한 결론자각 · 사회적 통찰력 : 자기인식, 자기모니터링, 사회적 자기 확신 · 도덕적·사회적 논증 능력 : 도덕적 논증능력, 균형시간, 통합적 복잡성
Campbell & Dardis(2004)	· 대인관계기술 : 의사소통기술, 적극적 경청, 감독기술, 카운슬링 등
Mullen(1998)	· 부하에 대한 영향력, 조직에 기반한 자기존중감, 부하의 역량지각
Bloch(1993)	· 친근한 태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기술 적극적 경청, 건전한 경영의식
Allen & Poteet(1999)	· 경청 및 의사소통기술, 안내, 회사 및 업계에 대한 지식, 타인이해, 정직, 진실한 관심, 사람 중심, 비전과 체계, 상식, 자기 확신, 자유로운 제안허용, 정보공유, 리더십 특성, 부하실수허용, 다재다능, 타인존경, 합당한 목표설정, 가르치는 능력, 피드백 제공, 공정성 및 객관성
Smith 외(2005)	· 인격 : 정직, 청렴, 높은 도덕 및 윤리의식, 태도 및 인품 · 지식 : 조직이해, 전문능력, 조직의 핵심가치 이해, 가르치는 능력 · 감수성 : 감정이입, 동정 및 이해, 진실, 확신
Wilson(1998)	· 청렴, 용기, 돌봄
Darwin(1999)	· 진실성, 유동성, 배려, 접근성, 능력, 격려, 양심, 근면
Fawcett(2002)	· 안내, 열정, 지식, 유머감각, 존경

<인생나눔교실>에서 멘토링은 멘티에게 어떤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치거나 특정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성장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것이기 때문에 Darwin(1999)이 제시한 진실성, 유동성, 배려, 접근성, 능력, 격려, 양심, 근면 등의 역량이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대 간 차이가 있는 멘토와 멘티의 만남이기 때문에 Campbell과 Dardis(2004)이 강조하고 있는 대인관계기술도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인생나눔교실>에서 멘토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먼저 되돌아 볼 수 있는 성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멘토는 걸어온 삶의 궤적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멘티와 나눌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멘토는 자신의 삶의 모습과 태도를 나눔으로써 멘티가 인생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참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Margo(2005)가 제시하는 멘티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나타난다[7]. 그것은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 자기 평가 또는 외부의 평가에 기초한 성장 잠재력, 한 가지 이상의 기술 수행 능력, 도전 과제와 새로운 책무를 찾고 있었다는 기록, 피드백과 코칭의 수용 능력이다. 그런데 이러한 멘티의 특징은 멘토링이 필요하여 스스로 멘토를 찾아나선 멘티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징이다. <인생나눔교실>의 멘티는 자기주도적으로 멘토링에 참여하기보다는 멘티기관 담당자가 멘토링을 신청하여 멘토링에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Margo가 제시하고 있는 멘티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어렵다. 게다가 <인생나눔교실>의 멘토링은 한 번에 약 15~20명의 멘티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대일 멘토링이나 소수인원을 데리고 하는 멘토링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렇기에 집단적 멘토링이면서 비자발적인 멘토링에 참여하는 <인생나눔교실>의 멘티가 멘토링에 적극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멘토링 방법론은 대개 최병권이 제안하고 있는 핵심 기술과 같이 멘토에게는 멘티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피드백을 주며 리스트를 관리하고 인맥을 확대하며 지도 및 개발하는 기술이, 멘티에게는 멘토를 발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주도력, 실천력, 관계 개선의 기술이 요구된다고 본다[8]. 그러나 <인생나눔교실>은 이와 다르게 인문학 기반의 문화예술 방법론을 활용한다. 어

떻게 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남과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 등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기회를 주는 <인생나눔교실>은 인문학 기반의 생각 멘토링을 추구한다. 그러나 자칫 인문학 기반의 멘토링은 강의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예술 기반의 놀이 멘토링도 방법론으로 활용한다. 예술을 매개활동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감성적이고 정서적 교감을 체득할 수 있는 멘토링을 지향한다.

멘토링의 기능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되는데, Kram(1983)의 기능 분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9].

표 2. Kram의 멘토링 기능

기능		내용
경력 관련 기능	후원	멘티가 바람직한 역할로 수행적 이동이나 나아질 수 있도록 추천해 주거나 기회를 제공해주는 등 도움을 주는 기능
	노출 및 소개	멘티의 경력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리자나 사람에게 소개를 시켜주며 능력 향상에 기회를 주는 기능
	지도	멘티가 부여된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이해하도록 그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기능
	보호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중에 멘티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요인들로부터 보호하여 주는 기능
	도전적인 업무 부여	멘토링에서의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롭고 도전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그에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과 성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활동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기능
심리 사회적 기능	역할 모형	멘토링 구성원으로서 멘토는 멘티들에게 학습 활동과 대학생활 등에 대한 적절한 행동양식과 태도, 가치관 등을 전달하여 하나의 역할모형으로서 멘티들이 닮아가는 기능
	수용 및 지원	멘토링이 진행되면서 멘토와 멘티가 상호간에 친밀감을 통한 신뢰를 구축하고 존중하며, 갈등이 생기더라도 따뜻하게 감싸 안고 격려해주는 기능
	상담	멘티의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 등을 멘토와 상의하고 그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며 서로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심리적인 돈독함을 쌓는 기능
	우정	멘토와 멘티가 교수자-학습자 기능의 공식적인 관계를 떠나 비공식적인 곳에서 서로에게 친밀함을 갖고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기능

이러한 멘토링의 기능을 바탕으로 <인생나눔교실>의 멘토링을 살펴보면, 경력개발 기능보다는 사회심리

적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멘토와 멘티의 상호적 신뢰감을 바탕으로 멘티의 자신감과 정체성 등을 형성하는데 주력하며, 멘티의 인생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군인, 중학생, 지역아동센터와 보호관찰소의 아동들로 구성된 <인생나눔교실>은 멘티 그룹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멘토링의 경우에는 멘티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멘토를 찾아 나서는데 반해, <인생나눔교실>의 멘티는 비자발적으로 멘토링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성이나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멘티 그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멘토링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인생나눔교실>에서 멘티를 이해한다는 것은 멘티의 삶의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 상황이나 여건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 <인생나눔교실> 멘티들이 갖고 있는 공통 이슈는 본인의 의지 혹은 선택과 관계없는 상황 속에 있으며, 계급사회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황이 종료되고, 환경에 대한 심리적 반응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인생나눔교실>의 멘티 유형에 따른 개별 이슈는 다음과 같다. 군부대 멘티의 경우에는 군 제대 후 진로에 대한 고민, 좁은 공간에서 강압적으로 함께 있는 이들과의 갈등이, 보호관찰소 멘티의 경우에는 사회부적응자로서의 낙인에 대한 고민, 사회로의 진입 과정에 대한 고민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멘티의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 자신감과 성취감 혹은 좌절로부터의 성장에 대한 이슈가, 지역아동센터 멘티의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되는 환경 및 여건, 아동의 성취감과 자존감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서 오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10]. <인생나눔교실> 멘토링은 멘티에 대한 이해와 멘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의미 발견을 바탕으로 멘토링을 인문학과 접목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인생나눔교실>의 멘토 및 멘티의 특성과 기술, 멘토링 기능에 대해 살펴본 바, <인생나눔교실>의 기능-역할-목표 층위를 구성해보면, [그림 2]와 같이 다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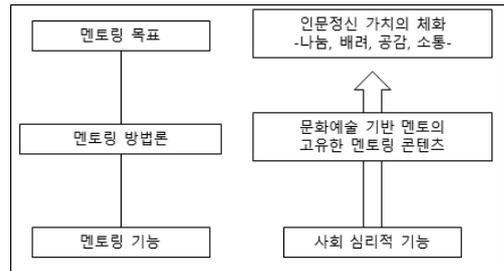


그림 2. <인생나눔교실>의 기능-역할-목표의 층위

종합해 보면, 1:다(多)로 진행되는 <인생나눔교실> 멘토링은 멘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멘토의 고유 멘토링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유 멘토링 콘텐츠는 문화예술을 토대로 삼되 이야기 기반, 체험 활동, 놀이 형태, 토론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다.

멘토는 은퇴자, 문화예술인, 인문학자 등으로 구성되며, 삶의 가치를 전달하는 자원봉사자이자 사회공헌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멘티는 본 사업의 최종 수혜 세대이자, 선배세대와의 소통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는다. 멘티는 멘토로부터 인생의 지혜를 얻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멘토와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서로 성장하는 동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세대 간의 소통을 통해 인생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인생나눔교실>이 추구하는 최종 도달 지점인 것이다.

IV. 결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더불어 살고 함께 나누는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하는 <인생나눔교실>에는 자신의 인생경험을 '나누'고 서로에게 '공감'하고 '배려'하는 인문정신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인생나눔교실>은 여타의 문화예술교육사업과 변별성을 갖는다. 일례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이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멘토와 멘티가 나눔, 배려, 공감, 소통의 가치를 체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인생나눔교실〉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교육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인문정신 가치의 체화라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매개체인 것이다.

인문정신 가치가 내재된 〈인생나눔교실〉은 2000년 이후 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노년세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한국사회의 비약적 발전은 물질적 풍요를 가져온 대신 세대 간 소통이 단절되고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정신적 공허함을 가져오기도 했다. 가치 있고,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지향하는 오늘날 〈인생나눔교실〉은 삶의 궁극적 목적을 성찰해 보고, 사람들 간의 소통과 공감, 나눔 등을 통해 진정한 삶을 영위하는 방법으로 인문정신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준다.

인문정신 가치의 체화라는 목표를 가진 〈인생나눔교실〉은 문화예술을 매개로 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특화될 수 있다. 이는 오늘날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과 지역공동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커지는 가운데 〈인생나눔교실〉이 삶의 경험을 나누는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다가 지역에 살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은퇴세대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생나눔교실〉이 확산되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삶의 성숙기에 들어선 세대가 지역 공동체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 나눔과 소통 중심의 인문정신 가치를 세대 간에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생나눔교실〉의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생나눔교실〉이 추구하는 인문정신 가치에 대해 학문적 탐색에 그쳤을 뿐, 〈인생나눔교실〉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제로 이러한 가치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추후 프로그램 분석 연구를 통해 〈인생나눔교실〉 사업이 갖고 있는 인문정신 가치의 의미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1] 이만기, *멘토링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2] 간진숙, *대학에서의 멘토링 모형 개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3] 최병권,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인재 멘토링, 새로운 제안*, 2004.
- [4] 간진숙, *대학에서의 멘토링 모형 개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 [5] 김교성, 강정한, 노혜진, 이현옥, 박태근, “한국의 ‘나눔’ 종합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8권, 제1호, pp.233-265, 2016.
- [6] 김수동, 안재진, 이정연, “배려적도 문화개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1호, pp.81-104, 2014.
- [7] 조규환, 주희진, “청소년용 배려적도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사고개발*, 제9권, 제3호, pp.185-204, 2013.
- [8] 김용석, 송진희, 김묘정, 조민영, “한국어판 사회복지사 공감적도의 타당화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복지사업*, 제44권, 제1호, pp.188-213, 2016.
- [9] 민현식, “세대간 소통을 위한 언어정책의 방향,” *국어국문학*, 제164권, pp.29-66, 2013.
- [1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생나눔교실 멘토를 위한 소양, 역량 입문교재*, 2015.

저 자 소 개

이 상 민(Sang-Min Lee)

정희원



- 1998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사)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 문화예술교육, 문화정책, 스토리텔링